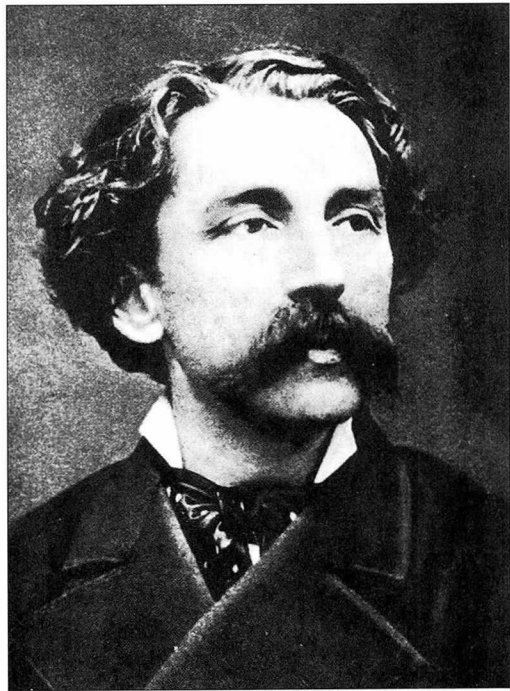


# 시의 영광을 고뇌했던 '공손한 테러리스트'

## 스테판 말라르메를 찾아서

황의조

서울대 강사 · 불문학



**“시는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말들을 가지고 만듭니다. 시를 읽는 것은 단순히 무상으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입니다. 시인이 노동을 하는 만큼 독자도 노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르메.

파리를 기점으로 거대한 '신의 영광' 폰텐블로 숲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다. 필자는 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 크레테이유에서 6번 국도를 타고 숲의 한가운데로 직접 이르게 되는 동쪽 행로를 선호했는데, 물렁에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노란색 겨자꽃밭들의 상쾌한 관능적 충격을 거저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동쪽 행로의 선택은 보다 계산된 것이었는데, 그것은 말라르메가 선택한 행로였고, '그의' 행로를 체험하는 것 자체가 필자에게는 연구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에서, 거의 타성(惰性)이 된 폰텐블로 외출도 시의 불가능한 영광을 위해 진지하게 평생을 고뇌했던 '공손한 테러리스트' 말라르메의 유애(有涯)의 집에 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142번 지방도로는 '신의 영광'의 허파 한가운데를 단숨에 가로질러 '왕의 숲' 남쪽 끝에서 세느강 상류 환죽기를 건너면서, 더 이상 신화가 아닌, 시인의 삶과 죽음의 현장에 이른다. — 발췌! 뵈렌 슈르 센느 스테판 말라르메 강변로 4번지. 바로 거기서 말라르메는 후일 프랑스 인문과학의 새로운 인식론적 모색의 한 시금석이 될 《절대의 책》을 위한 비망록의 완성에 몰두했다. 그가 바란 '꿈 없는 잠'은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일찍 왔고, 오늘날 인구에 회자하는 작품 《주사위 던지기 놀

이》만이 이 고독한 개인이 쌓으려 했던 바벨탑의 역설적 미망을 추론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영원한 잠의 사원은 완성되었다. 1998년, 발췌 바로 곁에 있는 사모로의 마을묘지에 비로소 그는 누웠다.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는 그대 입술로부터 저녁나절 내내 나의 이름을 읊조리게 한 그 숨결을 내가 빌 수 있거니와 하면 죽하리니"라고 한 시의 단장을 통해 그가 이미 요령을 가르쳐준 바 있었으므로, 대담을 위해 그를 깨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일어났다. 그는 대담을 위해 남쪽 뒤편에 장식없는 의자 둘을 마련했다.

### 시적 상념의 난해성

**황의조** — 랑송은 프랑스 상징주의가 말라르메·베를렌스·랭보 3인의 선구자를 가지며 그들 모두는 보들레르로부터 비롯한다고 했는데... 선생님과 보들레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초기작 〈창공〉, 〈바다로부터 오는 바람〉, 〈탄식〉 등이 보들레르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말라르메** — 그것은 역사주의적 회두입니다. 논의의 주제가 상징주의의 이념적 강령들인가, 움직이고 변하는 개별 작품들의 근본적 역사성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

은 작품일수록 예측불가능한 자기 고유의 가치와 힘을 가집니다. 문제는 그 미지의 언어활동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박제된 역사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경각심이 없는 문학의 논의, 시학 혹은 비평활동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내가 보들레르에게서 비롯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들레르와 같다면, 발레리와 내가 같고, 발작과 즐라가 같다는 얘기 아닌가요? 피상적 인상주의에 입각하지 않는 한 보들레르의 〈가을노래〉, 베를렌스의 〈가을의 노래〉와 나의 〈탄식〉은 결코 한 기원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언급한 초기 시 〈창공〉에서 "창공! 창공! 창공! 창공!"을 네번 거듭 썼는데, 그것들은 동어반복인가요? 적어도 내게는 똑같은 그 네 마디 말 어느 하나도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사용할 때, 두번 사용할 때, 그리고 세번, 네번 사용할 때 의미의 효과는 각각 다릅니다. 요컨대 시에 있어 동어반복이란 없습니다. 작품의 의미와 주제를 일반화, 추상화시키려는 욕망은 자명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숙명적으로 작품의 물질론적 의미생성을 축약시키고 맙니다. 시적 언어가 삶에 꼭 필요하다면,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교육하는 일 이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의 교육 또한 필요불가결할 것입니다. 시는 여러 개의 명칭들로 일상언어에 아주 낮설고 새로운 하나의 '통합적 말'을 재생산하면서, 평범한 단장(斷章)을 결코 그런 식으로 들은 적이 없다는 경이감을 당자들에게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명명된 대상의 아스라한 기억은 쇠신된 어떤 분위기 속에 젖어들 것입니다. 같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것은 같은 것입니다.

**황의조** — 선생님의 난해성은 거의 신화적인데요...

**말라르메** — 먼저, 드가가 자기도 머리 속에 시적 상념이 가득하다고 말하며 은근히 자신도 시를 쓸 수 있음을 내게 암시했을 때, 내가 그에게 한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는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말들을 가지고 만듭니다. 시를 읽는 것은 단순히 무상으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입니다. 또한 시를 쓰는 일이 노동인 것처럼 읽는 일도 노

동이죠. 시인이 노동을 하는 만큼 독자도 노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과 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언어 자체의 노동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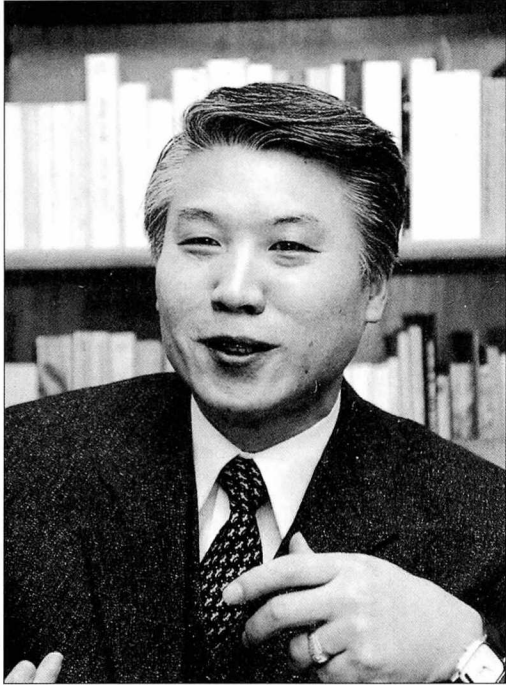
시인은 언어의 그 근본적인 주관적 활동성과 그 결과인 의미론적 자의성을 명철하게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좋은 작품은 말에 이니셔티브를 넘기는 시인의 '당당한 사라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프랑스어의 고조적 명확성을 빙자하여 내 글을 모호하고 난해한 신비주의로 매도한 19세기 당대의 몇몇 지식인과 저널리즘을 당당히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역사와 사회와 삶을 만드는 언어의 힘과 그 활동에 대한 인식론은 지금도 여전히 휴머니즘과 심리주의의 허망한 소모전 가운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은 주술적 신비주의 이상으로 더 나쁜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시인은 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 자신의 고유한 비석을 새기도록 고립된 사람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언어활동의 행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경험하려는 적극적인 노동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 누가, 그 무엇이 대신 살아 줄 것인가요? 독서는 삶입니다. 모호할 때도 투명할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있는 법입니다. 1891년 쥘 위레의 '문학에 있어서의 진보'라는 앙케트에서 나는 "대상을 명명하는 것은 조금조금씩 예감하도록 만들어진 시의 즐거움의 4분의 3을 없애는 것이다. 대상을 암시하는 것, 거기에 바로 꿈이 있다"고 대답한 바 있는데, 나는 그 말이 작시교육의 형식적 격언 이상으로 언어활동의 윤리학에 대한 조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말라르메주의와 실증적 문맥

**황의조** — 1949년 모리스 블랑쇼가 《불의 상속분》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물질론적 인식론을 계승한 작가로 지적한 이래, 50년대에는 바르트와 사르트르, 60년대에는 필립 솔레르스가 주도한 텔 켈 그룹, 특히 크리스티와 데리다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라르메란 이름을 전략적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언어학의 로만 야콥슨과 정신분석학의 라캉까지도 선생님을 알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으며,

“당신은 후일 프랑스  
인문과학의 새로운  
인식론적 모색의 한  
시금석이 될 《절대의 책》을  
위한 비망록을 완성하기  
위해 몰두했지요. 당신이  
바란 ‘꿈 없는 잠’은  
일찍 왔고 오늘날 연구에  
회자하는 작품 《주사위  
던지기놀이》만이 고독한  
개인이 쌓으려 했던  
비벨탑의 역설적 미망을  
추론하게 할 뿐입니다.”



황의조.

뉴네트와 토도로프도 예외가 아닙니다. 푸코가 《말과 사물들》에서 “보다 더 길고 보다 더 예기치 못했던 한 행로를 거쳐, 우리는 니체와 말라르메가 지시했었던 이 장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때 전자는 누가 말하는가라고 물었고 후자는 그 대답이 말 그 자체 속에서 빛나고 있었음을 보았다”고 말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조주의의 영광과 몰락, 기호와 미메시스의 개념규정, 현상학적 인식론과 언어활동에 대한 정신분석학의 간여와 역사성의 문제 등을 둘러싼 프랑스 60, 70년대는 그 이론적 투쟁의 미로에 일종의 말라르메주의라고 할 만한 실증적 문맥을 만드는데요 ...  
말라르메 — 긍정적 징후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활동의 물질론적 힘에 대한 관심의 증가입니다. 그러나 그 지향성의 설정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언어의 물질론적 힘은 일반화된 파괴나 해체 혹은 부정적(否定的) 행위가 아닙니다. 크리스테바는 나를 시적 언어의 혁명의 전위로 내세웠으나 과장된 것입니다. 나는 전통주의자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것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인식론적 단절의 담대한 시도로 강조된 ‘독서의 공간화’도 혁명적이라기 보다는 그 나름의 역사성을 가집니다. 멀리 같 것 없이 신문제목과 책표지를 보십시오. 주로

나의 《주사위 던지기 놀이》와 《절대의 책》의 비망록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데리다가 제시한 글의 의미생성에 대한 일반적 시론(試論)은 아리스토텔레스류의 이원론적 모방주의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항의들 중 하나로 보이나, 언어활동은 유희적 연상주의(聯想主義)는 아닙니다.

나로서는, 부정주의의 일방적 정언법과 함께 60, 70년대에 만연한 일종의 물질론적 신비를 조장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부정한다는 것이 어떤 파괴적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그것은 일반적인 부정적 관념의 단순한 표현이다”고 말한 사르트르의 고언을 경청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지체하기는 했지만 상투화된 말라르메주의와 내 언어활동의 긍정적 주관성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드러내 보여준 80년대 앙리 메쇼닉의 참여를 나는 눈여겨 보며, 올해 나의 100주기를 맞아 기획되고 있는 《유럽》지의 말라르메 특집과 베르트랑 마르샬이 책임지고 있는 플레이어드 전집 개정판의 출간(1945년 첫 출판 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에 대해 큰 기대를 겁니다.

황의조 — 피곤하실 텐데 장시간 동안 말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책과



박 시백

물론, 오늘의 이 위기는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빅경영.

이를 가능케 해준  
정경유착, 관치금융에  
근본적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도를 넘어선  
과소비!

바로 우리들의 사치도  
오늘날의 이 영혹한  
국가위기를 가져온  
원인중의 하나란  
말이죠



들어봐요, 다산선생의  
말씀을.

나의 재물을 낭비하고 나의 명예를  
손상하며, 남의 시기를 반한다면  
어리석지 않은가



모든 사치는 본래  
어리석은 자가 하는  
어리석은  
일이로다.

나원  
차남해서



택시 두번 탔다간  
아예 청문회에  
출두해야 겠구만



당연  
상지